



배 포 일	2024. 11. 28(목)	매 수	4매
생 산 부 서	해외사업처 해외개발팀 팀장 권봉경, 차장 김태호 (☎ 054-811-3847)		
배 포 부 서	홍보실 언론홍보팀 부장 배강민, 차장 신주용 (☎ 054-811-1331)		
배 포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 민간기업과 함께 에콰도르 도로개량 사업 참여

- ▶ 도공, 27일 에콰도르 과야퀼~쿠엥카 도로개량 사전타당성조사 계약 체결
- ▶ 도공-KOTRA 협력을 통해 민간기업의 중남미 시장 확대 기회 마련

-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7일, 에콰도르 민관협력청과 과야퀼-쿠엥카 도로개량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에콰도르는 최대 항구인 과야퀼과 주요 관광지인 쿠엥카를 연결하는 273km의 산악지 도로를 고속도로로 개량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 공사는 민간기업들과 함께 내년 9월까지 10개월 동안 해당 노선의 개량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 조사와 경제성 분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계약은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의 고속도로 건설 경험을 인정받아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됐으며, KOTRA 개발협력실과 키토 무역관, 현지 대사관 등 공공기관이 서로 협력해 결실을 이루게 됐다.

- 한편, 에콰도르는 해발 3,000m 이상의 험준한 산악지로 이루어져 도로에 급회전 구간이 많아 통행속도가 낮고, 깊은 계곡과 급경사가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도로의 정비가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악지를 극복하고 고규격의 도로망을 구축해 지역 간 통행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비탈면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끌었던 도로건설 노하우를 에콰도르에 전수하는데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 정연권 한국도로공사 신사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미주 대륙에서 국내 기업의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붙 임 : 1. 관련 사진 2부
2. 위치도



11.27(수), 에콰도르 쿠엥카에서 에콰도르 민관협력청 - 한국도로공사 간 프로젝트 계약 서명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두선 한국도로공사 해외사업처 부장, 이성희 KOTRA 키토무역관장, 정연권 한국도로공사 신사업본부장, 심재현 주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 파블로 세바요스 에콰도르 민관협력청장, 산티아고 말로 아수아이(Azuay) 주지사, 후안 카를로스 베가 재무부 장관, 로버트 루크 교통공공사업부 장관)



11.27(수), 에콰도르 쿠엥카에서 유두선 한국도로공사 해외사업처 부장(오른쪽 네 번째)과 파블로 세바요스 에콰도르 민관협력청장(오른쪽 다섯 번째)과 계약서 서명식을 진행하고 있다.

노선명	연장(km)	비고
Guayaquil ~ Cuenca	273.0	

